

착용감 개선을 위한 여자 저고리 패턴개발

- 20,30대를 중심으로 -

강 경희* · 최정욱⁺

안양과학대학 패션스타일리스트전공 전임강사* ·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의류디자인전공 조교수⁺

The Development of Patterns of *Jeogori* to Enhance the Fit

- With a Focus on Women in their 20s and 30s -

Kyoung-Hee Kang* · Jeong-Wook Choi⁺

Full-time Instructor, Dept. of Fashion Stylist, Anyang Technical College*

Assistant Professor, Dept. of Textiles & Clothing Design, Kyung Hee University⁺

(투고일: 2008. 9. 19, 심사(수정)일: 2008. 12. 3, 게재 확정일: 2008. 12. 15)

ABSTRACT

Jeogori, Korean jacket, can be categorized into two styles. Traditional style *Jeogori* is based on conventional construction method for ceremonial or festive occasions. Contemporary casual style *Jeogori* is based on western style flat pattern making for better fitting and functionality.

Traditional style *Jeogori* is quite flat on human body because it is not considered the grade of shoulder line and is drawn by vertical & horizontal line. This characteristic feature causes weakness in functionality and comfort compared to contemporary casual style. Apparently contemporary casual style has better wearing comfort. Yet to most Koreans, contemporary style *Jeogori* seems to lack of some characteristic style of its own.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o make *Jeogori* well balanced in terms of functionality, fit, comfort and traditional style. Currently used *Jeogori* patterns are compared in order to select the best among them. Onto the selected pattern, several alterations were tried focused on shoulder, armhole and sleeve lines to make optimal modifications. After several comparative fitting tests, the final pattern making method was suggested.

Key words: *Jeogori*(저고리), pattern(패턴), modification(개선), Korean costume(한국 전통의상), fitting test(착용 평가)

I. 서론

오늘날 한복은 관혼상제 및 특별한 행사, 명절 등에 착용하는 예복으로 전통적인 구성법을 그대로 계승한 형태와 한복의 전통적인 미를 현대적으로 구현하고 실용성과 편의성을 높여 일상복으로 착용하기 위한 생활한복 형태로 크게 분류된다. 전통 한복은 평면적인 웃이며 착용 후 의복의 넉넉한 여유분에서 생기는 주름의 미를 살려 입는 것이 특징이다. 한복 본 제작법 및 구성에 관한 여러 서적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전통적 방식의 구성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복 제작에 관한 교육도 전통 한복 제작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서양 의복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에는 한복이 활동상 불편한 웃이며, 이는 한복 산업의 대중화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 체형이 점점 서구화되어 가는 데 반해 한복의 평면적 구성방법 때문에 가슴 압박감이 발생하고, 어깨의 경사도와 무관한 수직·수평적 제도법으로 인해 팔의 움직임 시 격드랑이에서 겹쳐지는 분량을 처리하기가 힘든 문제점이 있다. 한복패션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선행연구에서도 전통 한복 구입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활동에 불편하다', '입는 격식이 까다롭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고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도 시대성 반영의 미흡, 라이프 스타일에 맞지 않는 기능성의 부재, 노숙한 디자인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채금석, 2007).

따라서 한복의 착용감 개선과 대중화 및 다양화를 위해서 기존 한복의 착용시 불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서구화된 체형에 잘 맞고 다양한 변화에 응용이 가능하며 착용시 부위별로 보다 안정되고 외관이 우수한 새로운 한복 패턴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한복 패턴들의 비교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전통 한복의 미를 살리면서 장점들을 취합한 패턴의 개발이 필요하며 현대화되고 서구화된 체형 변화에 적합하도록 보다 신체선과 의복선과의 적합성을 높인 새로운 패턴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한복 디자인의 다양화 및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도 필

수적인 자료를 제공함을 물론이고 서양 의복에 익숙한 젊은 층의 한복 착용시 불편한 착용감 및 이질감을 해소 하는 데에도 기여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본 연구는 기존 한복 패턴들을 비교 분석하여 전통 패턴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전통 저고리 제도법을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전통 한복 저고리 제도법과 서양의 입체적 구성법을 접목하여 신체선에 잘 맞고 편안한 착용감의 연구 저고리 패턴을 개발한 것이다. 서양 의복의 원형 제도법은 다트나 직선의 모양과 각도를 변형하여 신체의 곡선에 꼭 맞는 형태가 되며 디자인의 다양한 변화에도 패턴을 응용하는 공식들이 체계화, 수치화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서양 제도법과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한복 패턴의 개발은 한복 산업의 다양성 모색 차원에서나 서구화된 체형과 의복에 익숙한 젊은 층에 안정되고 친숙한 착용감으로 한복에 대한 인식전환의 차원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연구방법 및 내용

전통 한복 저고리패턴과 서양패턴을 접목하기 위하여 먼저 기존 한복패턴 중 학계와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패턴들을 착의 평가하고 각 패턴들의 장점을 취합하고 보완하여 저고리 비교패턴을 설계하였다.

전통 한복 저고리 착용시 불편한 점을 조사한 결과 옆목점에서 격드랑이 부분으로 내려오는 팔자주름과 소매통이 넓어 격추장스럽고 소매 달립이 안정되지 못하고 꼬이는 현상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비교 패턴과 ESMOD식 원형 제도법을 비교·연구하여 어깨선, 진동선, 소매산에 변화를 준 실험패턴을 제작한 후 착의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착용감과 외관이 우수한 저고리 연구패턴을 개발하였다.

1. 연구대상 및 실험시기

본 연구는 20대~30대의 한복 착용 경험이 있는 여대생 10명을 대상으로 착의 평가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사이즈는 Size Korea의 한국인 인체표준치수 20대, 30대 여성 표준체형의 평균치수에 근거하였다.

<표 1> 피험자 평균 치수와 Size Korea 여성의 20대, 30대 표준치수 비교

(단위:mm)

부위	피험자 평균	STDV	20대 여성	30대 여성	20 30대 평균
키	159.9	0.94	159.7	157.4	158.6
가슴둘레	84	0.7	82.2	85.3	83.8
등길이	38.7	0.56	38	38.4	38.3
화장 (팔길이+어깨너비/2+여유3)	73.4	1.25	74.2	72.6	73.4

<표 2> 실험복으로 사용한 기존 저고리 패턴

구분	출처	패턴의 특징
가	박영순. (2000). 傳統韓服構成. 서울: 신양사	패턴제도 시 보조지표가 되는 참고치수가 한국인 표준 치수에 비해 작게 설정되어 있다. 배래의 폭이 넓고 곡선의 형태도 과장되어 있다. 깃 달립의 경사도가 심하다.
나	소황옥. (2004). (전통한복) 여자한복 만들기. 서울: 경춘사	체형을 4가지로 구분하여 체형에 알맞은 패턴제도법을 각각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A형(키가 작고 마른 체형)을 선택하였다. 고대 너비가 넓다. 배래폭이 좁고 선이 완만하다.
다	심화진, 김월계, 이병화, 윤혜성, 최은경. (2004). 우리옷 만들기.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옆선의 길이가 짧고 앞길이가 길다. 앞 뒤 배래의 경사도가 크다. 배래의 폭이 넓고 곡선의 형태도 과장되어 있다.
라	홍나영, 김남정, 김정아, 김지연. (2007). 개정판 한복만들기. 서울: 교문사	기존의 저고리보다 뒷길의 불필요한 여유량을 줄이고, 앞 중심선을 2cm 밖으로 이동시켜 앞길의 여유량을 더 추가 하였다. 2) 앞길이가 길고 도련의 경사도가 심하다.
마	구혜자. (2002). 한복만들기(구혜자의 침선노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앞뒤 품이 타 패턴들의 중간 치수이다. 밑단의 여유분을 줄여 주도록 옆선은 사선을 이루고 있으며, 앞·뒤 도련선이 완만하다.

가슴둘레 82~85cm에 속하는 여성들 중 길이 관련 치수는 맞음새에 주는 영향이 비교적 적으므로 키 157~160cm, 등길이 38~38.4cm를 기준으로 각 항목 별 편차범위 $\pm 2.5\text{cm}$ 이내에 해당하는 피험자를 선정하였다(표 1).

착의실험은 동일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3차례로 나누어 시행되었으며 기존 패턴과 전통 패턴을 수정, 보완한 비교패턴 평가시기는 2008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서양패턴과 접목한 실험패턴은 7월 15일부터 7월 20일 사이에 착의실험 하였다.

실험복 제작에는 춘추용 블라우스나 셔츠 피팅용으로 적당한 머슬린(Muslin)을 사용하였고 규격은 면100%, 30수, 평직, 밀도 119.4×122.4 (율/5cm), 무게

$113.8\text{g}/\text{m}^2$, 두께 0.24mm이다.¹⁾

2. 기존 저고리 패턴분석과 착의실험

한복 저고리 원형 중 학계와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패턴 5가지(가,나,다,라,마)를 선별하여 제작한 후 피험자 10명에게 착의평가 하였다. 저고리 패턴은 Size Korea의 한국인 인체표준치수 20대, 30대 여성 표준체형의 평균치수에 근거하여 가슴둘레 84cm, 등길이 38cm, 화장 73.4cm로 제작하였으며 10명의 피험자에게 착용 시킨 후 착용감과 외관평가를 실시하였다.

저고리의 착용감 평가는 피험자 평가지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전체적인 착용감, 어깨, 진동길이, 소매통

크기, 목둘레, 앞풀, 앞길이, 앞도련선, 뒤품, 뒷길이, 뒤 도련선으로 나누어 부위별 착용감을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구성하였다.

외관평가는 본 연구진 1명과 의류학 전공 박사과정 이상의 보조연구진 4명이 각의 상태를 관찰·기록하였으며 평가지는 전체적인 외관,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 어깨선의 위치, 진동길이, 소매통 크기, 옆길이와 각도, 고대너비, 깃 크기, 셀선과 셀나비, 걸깃선과 걸섶선의 균형, 앞풀, 앞길이, 앞도련선, 뒤품, 뒷길이, 뒤도련선 등 18개 항목으로 나누어 5점 척도로 작성하였다.

3. 전통 저고리 비교패턴 설계 및 착의실험

전통 한복 저고리패턴을 ESMOD패턴과 접목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기존 저고리 패턴의 착용감과 외관평가를 통해 각 패턴을 비교 평가하고 장점을 취합하여 전통적인 패턴제작방식에 충실하면서 외관과 착용감이 비교적 우수한 비교패턴을 설계하고 동일한 피험자와 연구진이 착의실험을 하였다.

4. ESMOD 원형을 활용한 실험패턴 설계 및 착의실험

에스모드식 원형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존 길 원형들과는 달리 원형자체에 최소한의 여유분

이 포함되지 않은, 몸에 꼭 맞는 신체 밀착형이다. 따라서 원하는 의복의 형태나 디자인, 신체 동작 등을 고려하여 몸에 꼭 맞게 구성된 기본 길 원형의 치수를 부위에 따라 늘려주는 방식이 적합하므로³⁾ 에스모드 원형을 사용하였다. KSK0051(성인 여성복의 치수)를 참조하여 여성복 55사이즈로 Bodice, Sleeve원형을 제작하였고 Bodice원형은 여성복 셔츠 정도의 여유분으로 진동둘레와 깊이를 조정하였다. 이를 비교패턴과 접목하여 어깨 부위와 겨드랑이, 소매 달림의 안정성을 주고 깃, 셀, 도련의 곡선, 소매 배래 곡선 등은 한복 고유의 느낌을 살리도록 하여 실험패턴 7가지를 제작하였다.

실험패턴은 동일한 피험자 10명에게 착용 시킨 후 어깨, 진동, 소매 3가지 항목에 중점을 두어 착용감과 외관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분석하여 저고리 연구 패턴을 개발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1. 기존 저고리 패턴분석과 착의실험 결과

착의실험 결과 기존 패턴 5가지 모두 앞풀은 꼭 맞거나 작았고 뒤품은 크고 뒤밀단 들림도 심하였다. 전체적인 착용감, 외관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마’패턴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마’패턴의 셀, 깃, 앞·뒤 도련선을 선호하였다. 소매는 배래의 폭이 가

<표 3> 기존 저고리 및 비교패턴 착용감평가 (N=10)

평가항목	저고리	가	나	다	라	마	비교패턴
1.전체적인 착용감	2	2.8	2.6	2.9	3.2	4.2	
2.어깨	2.5	2.5	3.2	2.8	2.5	3.8	
3.진동길이	2.7	3.3	2.6	3.1	3.1	3.7	
4.소매통 크기(수구, 배래)	2.1	3.8	2.4	3.4	3.3	3.8	
5.목둘레	3.3	3	2.9	3.4	3.5	3.7	
6.앞풀	2.3	3.2	3	3.1	3.7	4	
7.앞길이	2.4	3	3	2.6	3.6	3.9	
8.앞 도련선	2.7	3.5	3.2	2.7	4.1	3.9	
9.뒤품	2.6	2.5	2.4	3.1	3.7	4.1	
10.뒷길이	2.9	2.8	2.4	2.8	3.5	3.8	
11.뒤 도련선	2.7	3.1	2.3	2.7	3.8	4.2	
평균	2.6	2.9	2.9	3	3.5	3.9	

〈표 4〉 기존 저고리 및 비교패턴 외관평가

(N=5)

평가항목	저고리	가	나	다	라	마	비교패턴
1.전체적인 외관	2	2.1	2.5	2.3	3.5	4	
2.앞모습	1.5	1.9	2.3	2.3	3.6	3.8	
3.뒷모습	2.3	2	2.2	2.6	3.8	4.5	
4.옆모습	1.8	1.9	2.5	2.6	3.6	3.8	
5.어깨선의 위치	1.9	1.9	2.3	2.6	3.2	3.6	
6.진동길이	1.8	2.3	2	2.4	3.1	3.3	
7.소매통 크기(수구, 배래)	1.4	4	2.1	3.4	2.7	4.4	
8.옆길이와 각도	2.8	2.2	3.2	3.3	3.4	4.1	
9.고대너비	2.9	1.6	2.7	2.8	4.2	4.5	
10.깃 크기(길이, 넓이)	3	2.4	2.2	3	4.2	4.2	
11.섶선과 셀나비	2.2	1.8	2.3	2.8	4.3	4.2	
12.걸깃선과 걸섶선의 균형	2.4	1.9	2.4	2.6	4.3	4.2	
13.앞풀	1.7	2	2.3	2.5	3.8	3.8	
14.앞길이	2.1	2.2	2.4	2.6	4	4.1	
15.앞 도련선	2.1	2.4	2.5	2.4	4.1	4.4	
16.뒤품	2	2	2.2	3	3.9	4.3	
17.뒷길이	2.2	2.5	2.1	2.5	4.1	4.2	
18.뒤 도련선	2.5	2.2	2	2.4	4.2	4.2	
평균	2.1	2	2.4	2.7	3.8	4.1	

장 덜 쳐지고 완만한 ‘나’패턴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가’와 ‘다’패턴은 소매 배래폭이 넓고 배래선이 과장되어 있어 좋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험자 중 가슴둘레는 평균치수이나 밑가슴둘레와의 차이가 크고 서구적 체형에 가까운 사람의 경우는 ‘라’ 패턴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저고리가 전체적으로 뒤로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평균 체형인 경우는 오히려 가장 나쁜 평가점수를 나타내어 체형간 선호도의 차이가 심하였다.

2. 저고리 비교패턴 설계 및 착의평가 결과

기존 패턴 착의실험 결과 앞뒤길의 착용감과 외관은 ‘마’패턴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매는 ‘나’패턴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각각의 제도법을 참조하여 저고리를 제작하였다. 즉 저고리의 앞풀, 뒤품은 B/4+1.5, 저고리 뒷길이는 총장/5, 앞길이는 뒷길이+3, 진동은 B/4, 걸깃길이는 B/4+1, 안깃길이는 걸깃길이+깃나비, 걸섶나비는 깃나비+1, 안섶윗나비는 1.5, 안섶아래나비는 2.5, 고대

는 B/10-0.5, 깃나비는 4.5로 하였다.

착의평가결과 다른 평가 항목은 기존 저고리 패턴에 비해 고루 높은 평가점수를 나타내었으나 뒤밀단들림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므로 뒤 중심선 1/3지점에서 시작하여 밀단끝점에서 1cm 길쪽으로 이동한 점까지 완만한 곡선으로 연결하였고 뒤도련 중심도곡선에 직각이 되도록 수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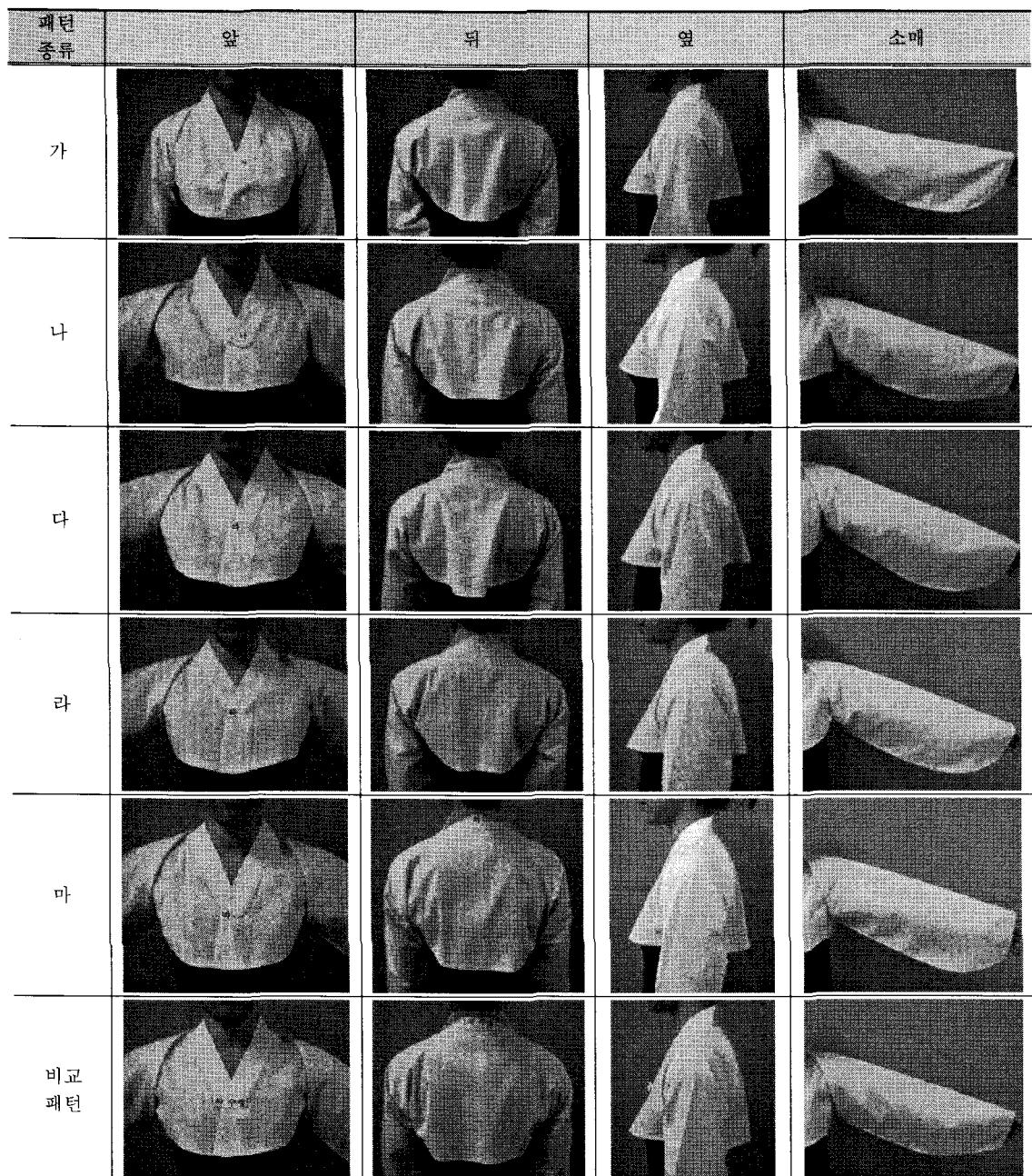
저고리 비교패턴 제도법은 〈그림 1〉과 같으며, 서양패턴과 전통 저고리 패턴을 접목하여 실험 패턴 제작을 위한 선행작업일 뿐만 아니라 전통적 패턴 제작 방식을 고수하는 측면에서도 착용감과 외관이 개선된 저고리 패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ESMOD 원형을 활용한 실험패턴 설계 및 착의실험

1) 실험패턴 제작방법

(1) 에스모드 원형 제작 및 변형

에스모드 원형은 Size Korea의 한국인 인체표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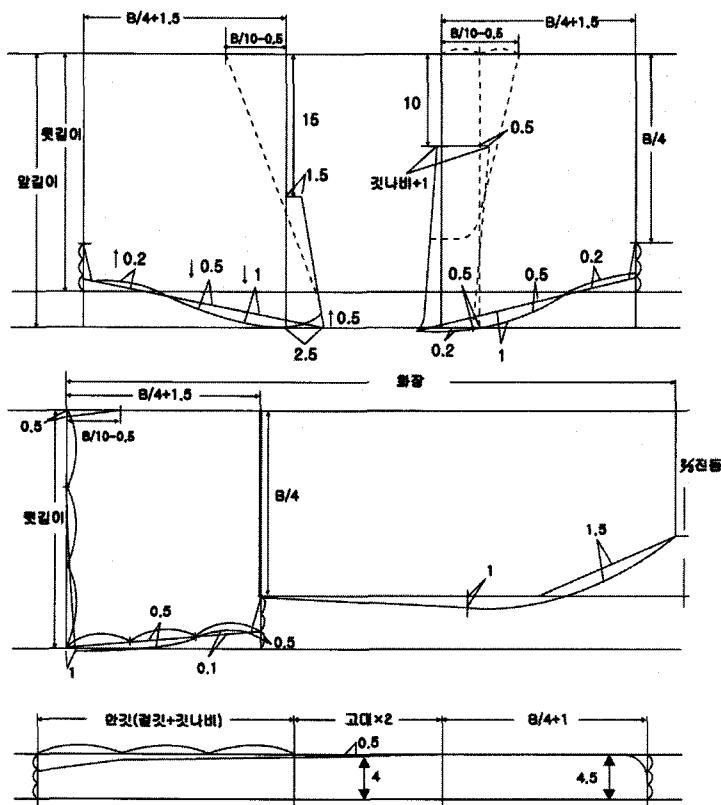


〈사진 1〉 기존 저고리 및 비교패턴 실험복 착의 모습

수 20대, 30대 여성 표준체형의 평균치수에 근거하여 가슴둘레 84cm, 등길이 38cm, 어깨너비 36cm, 팔길이(여유분+3cm) 56cm로 Bodice와 Sleeve원형을 제

작하였고 Bodice원형은 여성복 셔츠 정도의 여유분으로 진동둘레와 깊이를 조정하였다.

Bodice앞 어깨다트는 진동에 여유를 주기 위하여



(단위: cm)

〈그림 1〉 저고리 비교패턴

앞겨드랑점으로 1/2인치, 나머지는 옆선으로 Manipulation하였다. 옆목점은 0.5cm 넓히고 어깨끝점에서 0.5cm 연장하여 원형의 어깨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진동은 아래로 1.5cm 내리고 진동둘레 곡선은 앞겨드랑점 윗부분의 품이 줄어들지 않도록 주의하여 수정하였다.

Bodice 뒤 어깨다트는 진동둘레로 Manipulation하여 뒤진동에 여유를 주었고 옆목점은 0.5cm 넓히고 어깨끝점에서 0.5cm 연장하여 원형의 어깨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진동은 아래로 1.5cm 내리고 폭을 1cm 넓혀주었고 이동된 겨드랑점과 어깨끝점을 연결하여 새로운 진동둘레 곡선을 그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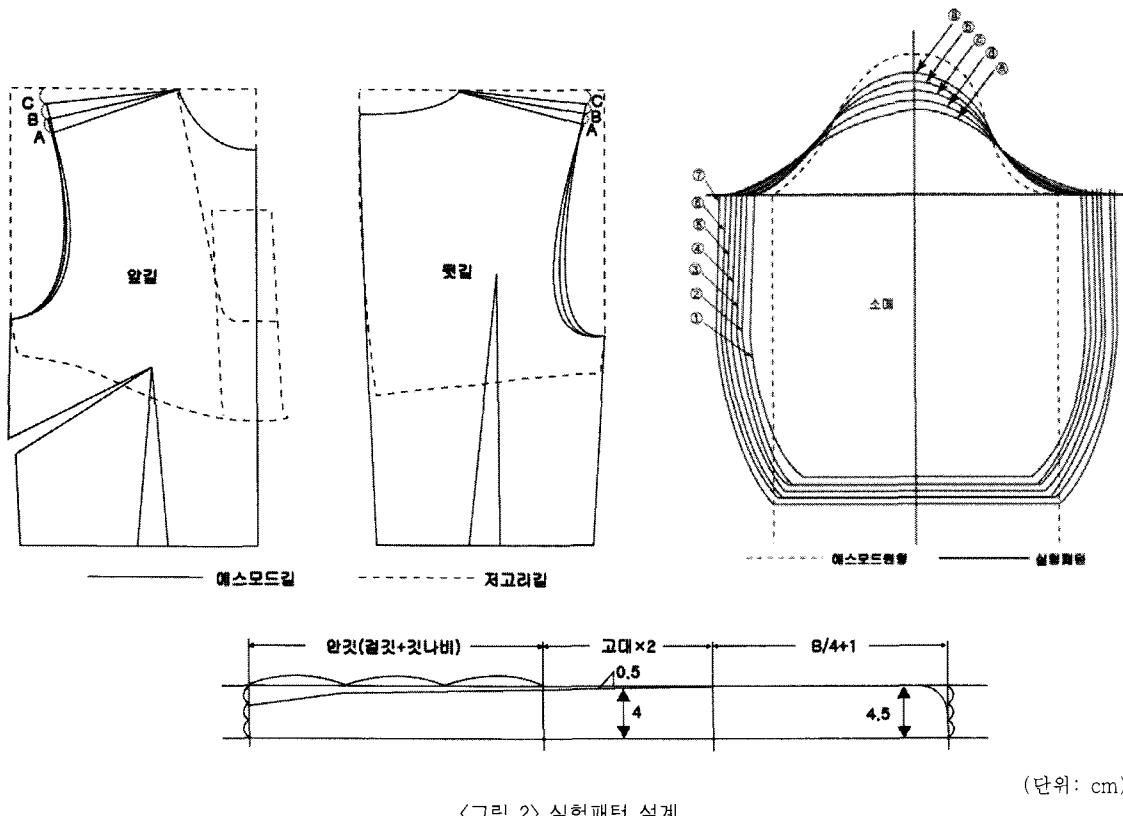
(2) 실험패턴 설계

변형시킨 에스모드원형과 비교패턴을 접목하여 어

깨부위와 겨드랑이, 소매 달림의 안정성을 주고 깃, 셀, 도련의 곡선, 소매 배래곡선 등은 한복 고유의 느낌을 살리도록 하여 실험패턴 7가지를 제작하였다.

길 실험패턴은 에스모드패턴과 비교패턴을 앞뒤 각각 겨드랑점과 중심선을 맞추어 놓고 두 패턴의 어깨선 각도를 3등분하여 〈그림 2〉와 같이 A(에스모드 어깨선 그대로 사용), B(1/3 등분선), C(2/3 등분선) 세가지로 나누었다. 어깨선의 길이는 동일하게 하여 진동둘레 곡선을 각각 수정하였고 깃, 셀, 도련의 곡선, 소매 배래곡선은 비교패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소매 실험패턴은 에스모드 소매원형에서 1인치를 낮춘 지점에서 1/2인치씩 낮추어가며 a(원형에서 -1인치), b(-1.5인치), c(-2인치), d(-2.5인치), e(-3인치) 5가지로 제작하였다. 각 소매산을 기준으로 몸판



〈표 5〉 실험패턴 길과 소매 연결방법

어깨각	소매산 (-1인치)	b (-1.5인치)	c (-2인치)	d (-2.5인치)	e (-3인치)
A (원형어깨)	①	②			
B (원형에서 1/3각도 올림)		③	④	⑤	
C (원형에서 2/3각도 올림)				⑥	⑦

의 앞뒤 진동돌레길이와 일치하도록 소매곡선돌레를 수정하였다. 소매길이는 화장-길어깨선길이, 수구는 비교패턴의 배래선을 그대로 사용하여 수구의 폭이 자연스럽게 전체 소매통과 조화되도록 하였다(그림 2).

이와 같이 설계된 길패턴 3가지와 소매패턴 5가지를 봄판의 어깨선과 소매산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표 5〉와 같이 조합하였다. 일반적으로 원형에서 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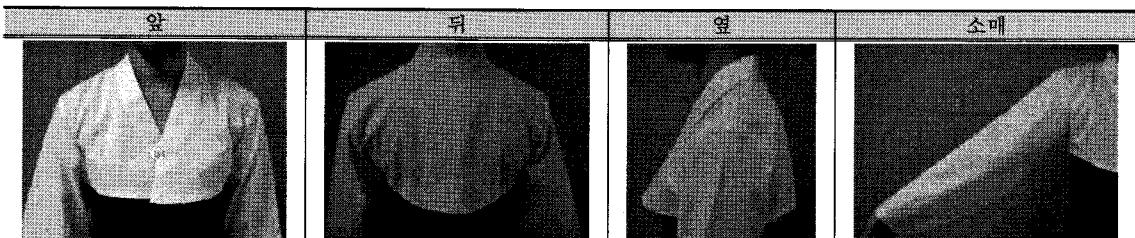
더 편안한 실루엣으로 변화를 주고자 할 때 어깨를 확장하고 그에 맞도록 소매산의 높이를 낮추어 확장된 진동길이에 맞도록 소매의 곡선을 조절하게 된다. 따라서 원형의 어깨를 그대로 사용하는 A패턴의 경우 진동 1/2인치 여유분과 겨드랑점 1/2인치를 낮춘 분량을 감안하여 원형의 소매산에서 1~1.5인치 낮춘 실험패턴 ①, ②를 제작하였고, 원형의 어깨에서 수평

〈표 6〉 실험패턴 착용감평가

평가항목	저고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전체적인 착용감	3.2	4.1	2.8	3	4.5	2.2	2.1	
2.어깨	3.2	3.7	2.4	2.6	4.2	2	1.9	
3.진동	3.5	3.7	3.3	2.5	4.5	2	2.4	
4.소매통 크기(수구 배래)	3	4.3	3.8	3.5	4.4	2.5	2.2	
평균	3.2	4.0	3.1	2.9	4.4	2.2	2.2	

〈표 7〉 실험패턴 외관평가

평가항목	저고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전체적인 외관	3.6	4.2	2.2	2.4	4.8	2	1.6	
2.앞모습	3.4	4.2	2.1	2.1	4.7	2.2	1.3	
3.뒷모습	3.6	4.2	2.7	2.6	4.7	2	1.4	
4.옆모습	3.4	4	2.6	2.8	4.6	2.3	2	
5.어깨선의 높이(각도)	3.1	4	2.1	2.4	4.8	2	1.2	
6.진동길이	3.1	3.5	2.8	2.8	4.8	1.8	1.5	
7.어깨선과 진동선의 균형	3	3.4	2.6	2.9	4.8	2	1.5	
8.소매통 크기(수구,배래)	3.5	3.8	3.4	3.8	4.6	3.1	2.6	
평균	3.3	3.9	2.6	2.7	4.7	2.2	1.6	



〈사진 2〉 실험패턴⑤로 제작된 저고리 착의 모습

각으로 1/3지점 높인 길B패턴의 경우 진동길이가 길어지므로 소매산도 1.5~2.5인치 더 낮추어 실험패턴 ③, ④, ⑤를 제작하였다. 또 길C패턴은 길B보다 진동길이가 더 길어지므로 소매산을 2.5~3인치 낮추어 실험패턴⑥, ⑦을 제작하였고, 어깨와 진동을 중심으로 실험 저고리 7가지를 착의평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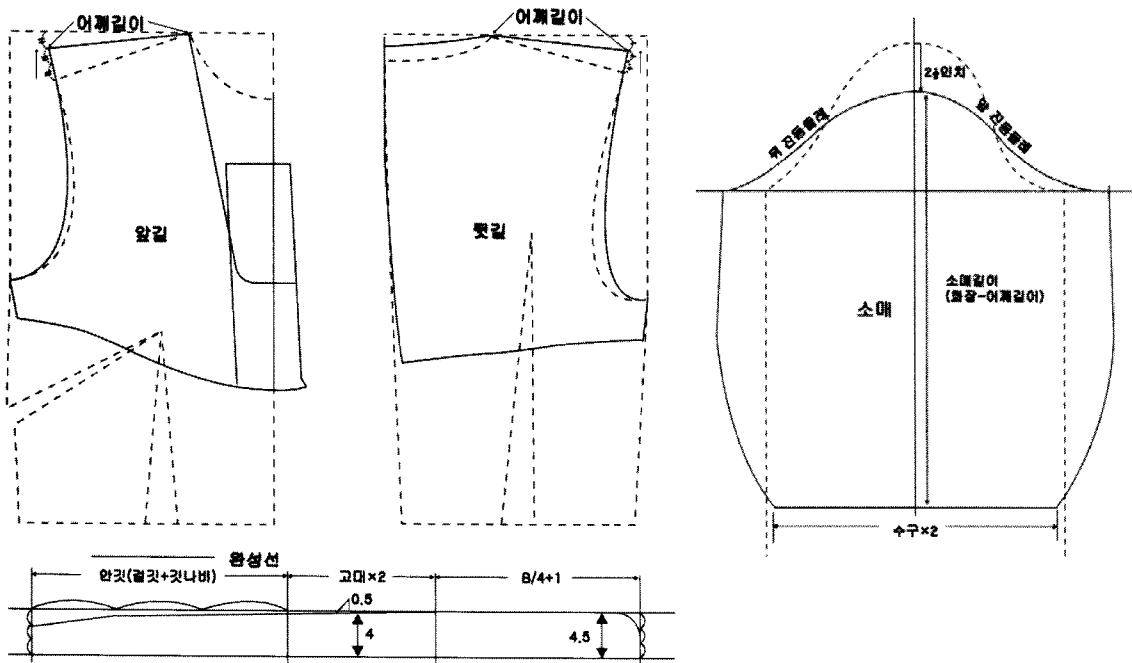
(2) 실험패턴 착의실험 결과

소매산과 어깨선에 변화를 준 실험패턴 저고리 착의평가 결과 ②, ⑤번 패턴이 착용감과 외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⑤패턴의 경우 착용감과 외관평가는 물론 어깨, 진동의 편안함이 전통 저고리 비교패턴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났으며(그림 4), ②패턴은 캐주얼한 느낌보다는 서양복 자켓 같은 외관에 타이트한 착용감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4. 최종 연구패턴 개발

최종 연구패턴은 기준 사이즈에 적합한 10명의 피험자를 선정하여 1차 기준 전통 저고리, 2차 비교폐



(단위: cm)

〈그림 5〉 최종 연구패턴



〈사진 3〉 최종 연구패턴으로 제작된 저고리 착의 모습

던 저고리, 3차 서양패턴과 비교한 실험패턴 저고리 착의 실험을 통해 최종적으로 개발되었다.

어깨각도, 진동둘레, 소매산에 변화를 준 7가지 실험패턴의 착의 평가 결과 착용감, 외관평가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패턴은 실험패턴⑤번이었으므로 최종 연구패턴으로 제시하며 제도법은 〈그림 5〉와 같다. 어깨의 각도는 에스모드 패턴의 어깨선에서 비교패턴 수평각과의 2/3각도지점으로 이동한 어깨선으로 하고 진동둘레는 이동한 어깨끝점에서 겨드랑점에 이

르는 곡선을 품이 줄어들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연결하였다. 소매산은 에스모드 원형에서 2½인치 내려 낮추고 소매곡선둘레는 앞뒤길의 진동둘레선과 치수가 같도록(실험패턴은 소매곡선둘레 이즈분량을 주지 않았다.) 설계하였고 소매길이는 화장-어깨길이로 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따라 실험패턴⑤를 사용하여 (사진 2) 여자 저고리를 결감 옥사, 안감 노방으로 제작하였으며 실제 착장 모습을 〈사진 3〉에 보였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여자 한복 저고리의 착용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통 한복의 미를 살리면서 현대화되고 서구화된 체형 변화에 적합하도록 신체선과 의복선과의 적합성을 높인 새로운 저고리 패턴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0, 30대 여성은 피험자로 선정하여 착용감 평가와 전문 연구진의 외관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저고리 패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양패턴 제도법을 적용한 새로운 패턴을 제안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전통 저고리 패턴과 서양패턴을 접목하기 위하여 우선 기존 한복패턴들을 착의평가 하여 착용감과 외관을 비교하고 각 패턴들의 장점만을 취합하여 뒤밀단이 들리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보완한 전통 저고리 비교패턴을 설계하였다. 비교 패턴은 기존 패턴들에 비해 외관과 착용감에 있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나 옆목점에서 겨드랑이 부분으로 내려오는 팔자주름과 소매 달림이 안정되지 못하고 꼬이는 현상, 가슴 압박감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신체선과 의복선과의 적합성을 높인 비교패턴을 ESMOD패턴과 비교연구하여 전통적인 저고리의 깃, 쇠, 도련의 곡선, 소매 배래 곡선은 그대로 살리면서 활동적이고 친근한 착용감을 고려하여 어깨선, 진동선, 소매산에 변화를 준 실험패턴을 제작하였다. 실험 패턴 제작에 있어 비교패턴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깃, 쇠, 도련곡선은 그대로 사용하고 어깨선의 길이는 동일하게 하되 각도를 변형하여 길패턴을 제작하였고 소매산은 진동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원형에서 여러 단계로 낮추어 실험패턴을 제작하여 어깨, 진동, 소매를 중심으로 착용감과 외관을 검토하였다. 최종 연구패턴은 서양패턴의 어깨선과 한복의 수평적 어깨선과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어깨 각도를 제시하였으며 어깨선과 균형을 맞춘 진동들레, 소매산의 높이 조절방법도 제안하였다.

한편 최근 한복은 전통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패티복, 일상복, 서비스업 근무복, 문화시설 근무복, 학생 교복, 무대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어 그 형태를 찾아볼 수 있으며, 한복의 세계화 대중화를 위해

디자인 및 소재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패턴은 기본적인 저고리의 형태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기능성과 활동성을 고려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양 패턴과의 접목을 시도하여 실루엣상의 현대화, 다양화를 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으나 서양패턴은 소재와 디자인에 따라 여유분의 가감, 다른 활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복의 다양한 활용분야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치수는 20~30대의 평균치 수에 국한되어 있어 평균을 벗어난 사이즈에 대해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한복 활용분야의 다양화에 적합한 패턴을 제공하기 위하여 치수의 다양화, 저고리 길이의 변화, 실루엣의 다양화, 디테일의 변화, 소재의 다양화에도 서양패턴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다른 이동 및 패턴의 다양한 변형을 접목할 수 있는 지속적인 패턴개발이 필요하며 한복의 현대화와 함께 독자적인 디자인과 과학적이고 편의성, 실용성을 갖춘 소재개발에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조진숙, 서지연 (2001). 재킷 소재에 따른 Fitting용 머슬린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3), pp. 650-661.
- 홍나영, 김남정, 김정아, 김지연 (2007). 개정판 한복만들기. 서울: 교문사.
- 손희순, 최혜선, 이형숙 (2006). 의복구성의 실제.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박영순 (2000). *傳統韓服構成*. 서울: 신양사.
- 소황옥 (2004). (*전통한복*) 여자한복 만들기. 서울: 경춘사.
- 심화진, 김월계, 이병화, 윤혜성, 최은경 (2004). *우리옷 만들기*.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구혜자 (2002). *한복만들기(구혜자의 침선노트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박영선 (2004). *생활한복디자인*. 서울: 늘봄.
- 채금석 (2002). 관광사업을 위한 한국적 이미지의 휴식복 개발: 여객선·여객기·호텔 이용객을 대상으로. 서울: 집문당.
- 채금석 (2007). 한복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연구-세계 패션명품, 동양 각국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1(9/10), pp. 1418-1430.
- 조오순, 전정희 (2001). 여성 생활한복을 위한 디자인 개발. *한국의류학회지*, 25(8), pp. 1378-1385.
- 진현선, 권미정 (2003). 중년 여성을 위한 한복 저고

- 리의 체형별 원형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5(1), pp. 13-24.
- 13) 강순제, 남윤자, 조효숙, 홍나영, 황의숙 (1999). 여자 한복의 기성복화를 위한 패턴개발-20대를 중심으로. *복식*, 42, pp. 77-89.
- 14) 박영선 (2005). 생활한복 이미지를 활용한 캐주얼웨어 디자인 개발. *복식*, 55(1), pp. 25-42.
- 15) 천종숙 (1998). 생활한복 저고리 디자인의 구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6), pp. 691-698.
- 16) 김미진, 김혜영, 조우현 (2005). 근대이후 여성 생활한복의 특징 및 변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7(2), pp. 137-158.